스마트 영농 '농뷰 서비스' 일석이조

드론·AI 활용 조사료 생육 조사
미재배 면적 167ha 식별
보조금 1억7000만원 누수 방지
현장 점검 71% 줄여 행정 효율↑

남원시 스마트 영농 관리 '농뷰(Nong-View) 서비스'를 위한 드론 작업.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스마트 영농 관리 '농뷰 서비스'로 지역 사회 경쟁력 향상과 예산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남원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드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조사료 생육 조사 실증을 통해 보조금 누수를 방지해 예산 절감 효과를 달성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인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디지털 혁신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사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남원시는 2023년부터 시행했다.

올해는 LX와 협력해 영농 행정에 ICT 기반으로 정책지원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영농관리서비스 '농뷰(Nong-View)'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뷰 서비스는 드론 영상과 AI 분석을 접목해 남원시 전역의 고해상도 정밀지도를 구축하고, AI 기반 영상분석 서비스와 연계하여 디지털 조사 업무 전환과 데이터 기반 농정 의사결정 체계로 확장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남원시는 매년 조사료 재배 농가 및 경영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작업비 등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 점검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됐다.

이번 동계 조사에서는 드론 영상과 AI 분석을 기반으로 전수 조사를 시행해 미재배 면적 167ha(약 11%)를 정확히 식별했으며, 이를 통해 보조금 약 1억7000만원의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는 동시에 현장 점검량을 71% 줄여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는 이번 성과로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업무 부담을 낮추고 다양한 행정 분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전국 첫 학생·교사·학부모 인권 증진안 마련

전북교육청, 기본계획 수립

전북교육청이 모든 교육주체의 인권보호에 행정력을 모은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제1차 학교 구성원 인권 보호·증진 기본계획'(2025~2028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해 마련됐다.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 조성이 목표다.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 등 교육주체 모두를 위한 종합 인권정책 수립은 전국에서 전북교육청이 처음이다.

기본계획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보호·증진되는 학교 문화 조성 ▲학교 구성원 상호 존중 인권 역량 강화 ▲소통과 참여로 인권을 실천하는 민주적인 학교 ▲지역사회 인권 협력체계 구축 등 4대 핵심 목표와 6개 중점과제, 12개 추진과제, 30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한 영역을 세부 추진과제에 담아 시대 상황에 맞는 인권의식 함양에도 초점을 맞췄다.

도 교육청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 인권침해 예방부터 회복·지원까지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학교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운영, 지속가능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까지 포함하는 인권 정책으로,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권보호와 상호 존중 문화를 실현해 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왕실 청화백자의 품격 감상하세요"

정읍시립박물관, 12월 7일까지 국보순회전…보물급 5점 공개

국가 보물인 '청화 구름 용무늬 항아리(왼쪽)'와 '백자 투각 모란무늬 항아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급 청화백자 5점이 2일부터 3개월간 정읍시립박물관에 전시된다.

정읍시립박물관은 국립전주박물관과 함께 '국보순회전-모두의 곁으로'를 연다며 이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하는 지역 순회전으로 정읍에서 왕실도자의 품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12월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조선 왕실의 권위와 미감을 상징하는 청화백자가 중심이다.

원통형 내호와 활짝 핀 모란꽃을 투각한 외호가 겹겹이 맞물린 이중 항아리 구조가 특징으로 교과서에도 소개된 국가보물 '백자 투각 모란무늬 항아리'가 전시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와 문양의 청화백자가 함께 전시돼 왕실 도자의 조형미와 기술적 정점이 입체적으로 조명된다.

전시실에는 관람형 전시에 체험을 더한 교육 공간도 마련됐다.

촉각 체험물로 배우는 '아하 배움터', 어린이를 위한 '쓱쓱 퍼즐-청화백자'가 상시 운영되며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감상 가이드가 작품 이해를 돕는다.

가족 단위 관람객이 작품을 보고, 만지고, 스스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보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감하도록 구성됐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가축 11만두 구제역 접종

1개월 앞당겨 이번달 예방백신…접종지원반 직접 방문

정읍시가 올해 3월 전남지역 구제역 발생에 선제 대응하고자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 일정을 예년 10월보다 1개월 앞당긴다.

정읍시는 1일부터 30일까지 소 9만8684두와 염소 1만387두 등 총 10만9071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집중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두 미만 소와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 10명과 염소 생산자단체 보정반으로 꾸린 '접종지원반'이 직접 방문해 조기 접종에 나선다.

이외 소규모 농가에는 백신을 무상 공급하고 전업 규모 이상인 소 50두 이상 농가는 자가 접종을 실시하되 백신 구입비의 50%를 보조해 비용 부담을 낮춘다.

단 최근 예방백신 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이나 임신 말기(7개월~분만일)의 소 등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접종에서 제외된다. 분만 등의 사유가 사라지면 즉시 접종이 이뤄진다.

시는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후 4주 이내 모니터링을 실시해 항체양성률을 점검하고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재검사를 하는 만큼 접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최근 항체양성률 검사에서 기준치보다 낮게 나오는 농가가 적지 않다"며 "정읍은 전국에서도 소 사육 두수가 많은 지역인 만큼 이번 조기 접종을 빈틈없이 이행해 구제역 방역 모범도시가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청년 만원주택 '피움 하우스' 입주

빈 건물 정비해 월 임대료 1만원…청년·신혼부부에 인기

남원시는 지난 28일 노암동 소재 '피움하우스'에서 개소식을 열고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주요 내빈, 입주민 등이 참석해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응원했다.

'남원 피움하우스'는 빈 건물을 정비해 만든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앞서 11세대 입주자 모집에 401세대가 신청, '36대 1'이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월 1만원의 저렴한 임대료와 생활 필수 가전이 갖춰진 주거공간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주거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일자리·정착 지원 정책과 연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피움하우스는 청년들이 불확실한 시작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정된 쉼과 기회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시작'이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원시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호남권드론종합지원센터' 구축 순조

고창군·국토부 협약

고창군이 성내면 일원에 조성 중인 '호남권드론통합지원센터'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호남권드론통합지원센터를 건립을 공식화하고 원활한 운영과 관리,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고창의 호남권드론통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363억원을 투입, 8만9602㎡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활주로와 실시시험장이 구축될 예정인 센터에서는 비행시험, 드론자격, 드론교육 등을 이뤄지며 이를 통해 연간 교육인원 1000여명과 자격시험 인원 1만5000여명이 방문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의 관계인구 확대의 모범사례라 주목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착공했고 최근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했으며 내달부터 본격적인 시설 건립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준공시점은 2026년 12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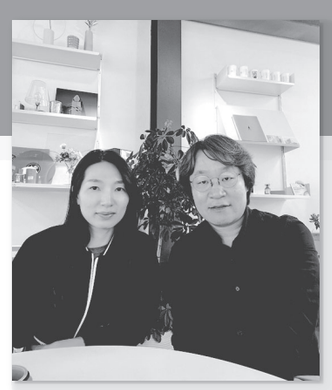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 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여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